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광고

Sight and Sound Trip fo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일시: 3 월 25 일 (토)

입장료: Adult \$85

Children \$50

- PCA(미국장로교) 한인동북노회 정기노회를 우리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3 월 14 일(화) 오전 10 - 오후 5 시에 세광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 춘계 부흥사경회

일시: 3 월 31 일(금) - 4 월 2 일(주)

강사: 정민철 목사(뉴하트선교교회)

2017 년 2 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최경자 집사/시 131 편

이번 주 친교: 강승연/이현주 집사

다음 주 친교: 서현숙/신미라 권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 시 본당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만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2월 26일

인도:
이민영 목사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찬송 (Hymn) 20 장(통 41 장)

다함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s) 119:33-40

이현주 집사 찬양(Choir) “나를

인도하소서” 세광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갈(Gal.)1:11-24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2017. 2. 19. 주일설교 요약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갈 1:1-10)

바울의 일생에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행 20:24)”이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책망으로 시작하는 이유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받은 구원이 헛되게 될 위험 앞에서 바울은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에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추가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와 자력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려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것은 교리나 종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 그럴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공로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롬 11:6).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 것 외에 어떤 자랑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복음이란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복음이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전하는 소식인데, 그 일어난 일도, 그 일을 전하게 된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자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4 절에서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발견하거나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소식 전하는 자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8 절: 우리가 전한 복음; 9 절: 너희가 받은 복음).

이렇게 내용과 전달 면에서 철저하게 은혜로만 주어진 복음이기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복음”을 자기 뜻대로,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자기 욕심을 위해 전한다면 경죄 받을 일이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이외에 어떤 공로와 선행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초심입니다.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방향이 틀어질 위기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초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철저한 은혜의 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힘은 초심입니다. 예수 처음 믿고 넘쳤던 감격과 기쁨은 초신자의 순진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숙하고 눈이 넓어지는 것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갈 때 일어나는 일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을 잃은 상태에서 여러가지 경험 가운데 식견이 넓어지면 타협이고 배반일수 밖에 없습니다.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어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히 이기는 용기를 잃지 맙시다. 그 초심을 잃은 것 같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처음 감격을 잃는 것은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당연히 일어나는 성숙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바랄 수도 없었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교회, 그 은혜를 믿고 겸손히 그러나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사역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경험이 쌓여야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초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의 주제가,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로 인한 구원, 그로 인한 기쁨, 그것만을 자랑하는 증거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3/5) 설교: “누구에게 인정될?” (갈 2:1-10)